

# 미래 선박연료 수요의 든든한 뒷받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1호 펀드' 투자 서명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1월 14일(화) 오후 3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이하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맞물려,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해운·항만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해운분야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하여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위한 목표

인프라 펀드는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을 국내 항만에 구축하고 선사가 병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1조 원 중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4천억 원은 LNG·암모니아 병커링 전용 선박 4척 신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 선박의 친환경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임석하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 우리자산운용, 현대오일터미널 등 펀드 참여 관계자가 참석하며, 1호 펀드 설립을 위한 '투자기본계약 체결 합의서'와 '대출약정체결 합의서' 서명이 진행된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 원 규모로, 이 중 1,300억 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향후 친환경 연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는 우리 해운 업계와 항만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를 향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항만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현 (044-200-5773)
담당 부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프라금융부	책임자	팀 장	유선형 (051-795-1781)
		담당자	과 장	곽종우 (051-795-1782)

